

2021년 나눔과섬김의교회 추석 예배모범

☞ **예배초대** 어려운 때이지만 좋은 날을 주시며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 **찬 송** 588장

☞ **기 도** 인도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계절, 결실의 계절을 맞아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성 경** 로마서 14:7~9 (신약 258쪽)

☞ **설 교**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오늘과 같은 명절에 고향을 찾는 이유는 고향이 우리 육신의 부모가 계신 곳이며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신 산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살아계신 부모님보다도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한 때가 추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은 산 자가 죽은 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망각하고자하는 본성이 있어서 삶이 우리 살아있는 자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삶은 결코 산 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고인들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고, 산 자들은 머지않아 죽은 자들의 반열에 들어갈 날이 오게 됩니다. 산 자는 죽은 자의 과거요, 죽은 자는 산 자들의 미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인해 산 자와 죽은 자들의 주님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산 자와 죽은 자들의 주님’이라는 말씀은 신자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타인과의 영원한 이별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영결(永訣)”이라는 말로 죽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조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롬 8:38~39).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증언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주를 위해 죽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은 오직 신자에게만 약속된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 산 자들에게만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앞서 죽어간 모든 신앙의 열조들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성도’는 현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성도들과 앞으로 존재할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단지 잠자고 있을 뿐이며, 언젠가는 그리스도처럼 다시 깨어나서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죽은 자들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희망이요 위로입니다.

죽음에서 소망을 주지 못하며 죽은 자들을 위로하지 못하는 종교와 사상은 사람에게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내고 스스로도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사상은 공허하며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와 사상은 죽음에 대한 아무런 약속도, 소망도 없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죽은 자들, 의로운 자들의 죽음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부조리한 세상을 바로 세우려는 어떤 노력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어떤 바람도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를 찾을 수 없는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을 잊힌 존재로 만듭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은 평소에는 돌아가신 분들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명절이 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보다 앞서 가신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을 떠올리며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다시 한 번 기려봅니다. 아울러 언젠가는 그분들이 가신 길을 가게 될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되새기고, 산 자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추석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그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즐거움을 회상하고 즐겨 드시던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그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듯,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통해 돌아가신 분들을 기림으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영생의 소망을 품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찬 송** 488장

☞ **주기도** 다같이